

87.5% 압도적 찬성! 7.16 총파업으로!

7월 8일~10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의 압도적인 투쟁 의지를 확인했다. 총파업으로 나설 때가 왔다.
7월 16일(수) 15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대회가 열린다.



노조할 권리를 넓히는 716 총파업

지난 정권은 노조법 2·3조 개정에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동자가 주도하는 사회대개혁은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가 온전히 노조할 수 있는 권리에서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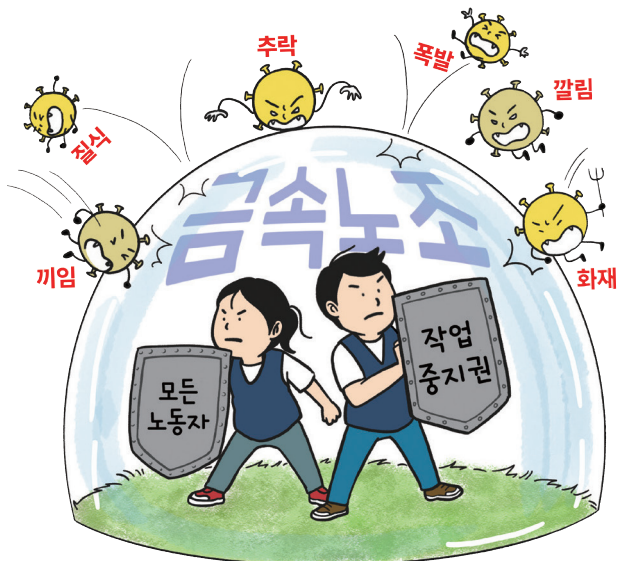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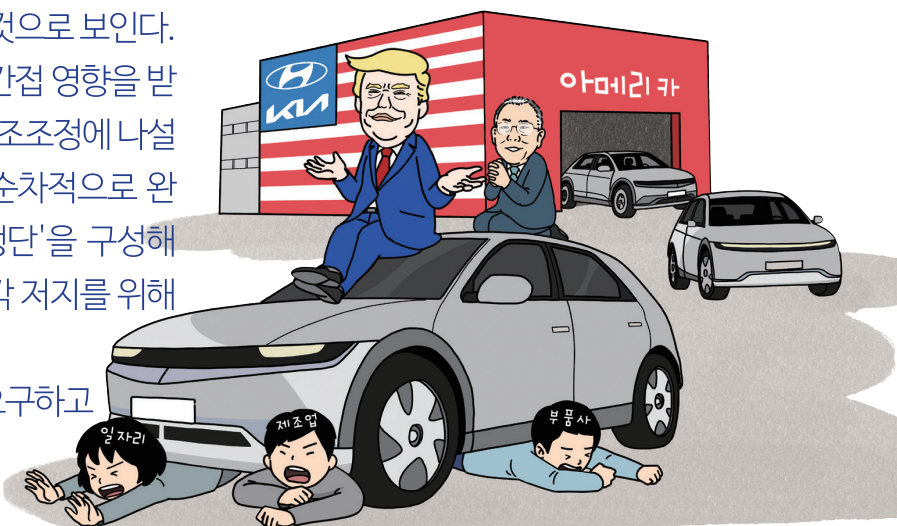
노조 회계공시, 타임오프시정 조치는 여전히 금속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있다. 새 정부는 회계공시를 폐기하고 노사 합의에 기반한 노조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재벌자본 맞춤형 정책만으로는 민생경제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일터 민주주의가 바로 설 때 경제회복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제조업 일자리 지키는 716 총파업

미국의 관세 폭탄은 한국 제조업 노동자 고용과 삶 전반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4월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제조기업의 60% 이상이 직간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은 이를 핑계 삼아 위기를 부풀리고 명분없는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 5월, 한국지엠은 국내 직영서비스센터를 순차적으로 완전 매각하겠다고 일방 통보했다. 이에 맞서 한국지엠지부는 '뚝심투쟁단'을 구성해 160km에 달하는 도보 시민 선전전을 진행하는 등 직영서비스센터 매각 저지를 위해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정부에 국내 공급망, 일자리 위기 대응을 위한 노정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생산망 구축이 자본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부담은 노동자에게, 특히나 취약한 조건의 노동자에게 더 무겁다. 노동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로 산업과 일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716 총파업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제조업 사망자는 124명(사고 43명, 질병 81명)이다. 지금까지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16명이 사고로 사망했다. 산재가 발생할 만큼 위험해보이는 작업을 거부하는 건 당연한 권리다.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다.

작업현장의 위험은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다. 노동자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등은 위험요인을 개선하며 산재를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알면서도 예방, 개선하지 않는데 무엇을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 작업중지권이 더욱 요구되는 이유다.

중앙교섭, 집단교섭. 지금 어디쯤?

중앙교섭

6월 17일 8차 교섭에서 결렬됐다.

통일요구안 <작업중지권>에 대한 사측의 제시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못미친다. 중앙교섭 요구안 <기후위기 대응>은 산업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노사 대응이 필요하지만 사측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금속산업 최저임금> 요구안은 통상시급 기준 11,210원, 월 통상임금 2,533,460원. 매년 그렇듯 사측은 '법정 최저임금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답변만 내놓는다.

집단교섭

6월 19일 8차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지부 공동요구안 중 원안 수용한 <화재발생대피>를 제외하면 임금, 집단교섭 협약서에 대한 제시안이 없다. 2020년 대한솔루션지회·동양피스톤분회, 2022년 말레동현화성지회·모베이스전자지회. 최근 합류한 4개사 사측이 집단교섭 협약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집단교섭 협약서 쟁취'를 위한 집단교섭 4개사 투쟁

집단교섭 4개사에서 집단교섭 돌파를 위한 선전전, 중식집회 등 투쟁을 진행했다.

7월 2일(수), 동양피스톤분회



7월 9일(수), 모베이스전자지회



7월 3일(목), 말레동현화성지회



7월 10일(목), 대한솔루션지회

